

화개동천의 지형경관과 장소이미지*

기근도**

Geomorphic Landscape and Place Images of Hwagae Dongcheon*

Keun Doh Kee**

요약 : 이 연구는 화개동천의 지형 경관 특성과 장소 이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지역은 화개천 유역의 화개동천, 쌍계/청학동천, 삼신동천과 그 인근 섬진강변의 덕은동천과 부춘동천이다. 덕은동천과 부춘동천은 섬진강변에서 가까우면서도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곳이며, 군자가 은거하여 살았던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지닌다. 화개동천은 내부 동천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봄이면 꽃이 만개하는 별천지이자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으로서의 이미지를 지닌다. 쌍계/청학동천은 화개동천을 통과하여 만나는 또 다른 별천지로서 최치원과 신선이 사는 신선 세계로서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삼신동천은 화개천 최상류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더욱 맑고 신선하며 접근하기 어려워서 신선이 살고 승려들이 수도하는 모습이 떠올러지는 선경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주요어 : 화개동천, 쌍계/청학동천, 삼신동천, 덕은동천, 부춘동천

Abstract :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geomorphic landscape and place image of Hwagaedongcheon. The study areas are Hwagaedongcheon, Ssanggye/Cheonghakhongcheon, and Samsindongcheon in the Hwagaechon Basin, and Deokeundongcheon and Buchundongcheon near Seomjingang River. Deokeundongcheon and Buchundongcheon are close to the Seomjingang River, but are hidden and invisible, and have the image of a place where a nobleman lived in hiding. Hwagaedongcheon has the image of an utopia like Mureungdown, an entrance to the inner Dongcheon, a place where flowers are in full bloom in spring. Ssanggye/Cheonghakhongcheon is another different heavenly place that passes through Hwagaedongcheon and holds the image of a new world where Choi Chi-won and a legendary hermit (Sinseon) lived. Samsindongcheon is located in the uppermost valley of Hwagaechon, so it is clearer and fresher, and it is difficult to access. Samsindongcheon has a place images of a legendary hermit's and monk's sanctuary.

Key Words : Hwagaedongcheon, Ssanggye/Cheonghakhongcheon, Samsindongcheon, Deokeundongcheon, Buchundongcheon

I. 서론

우리나라는 국토의 2/3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산지를 중심으로 한 삶터와 그에 따른 전통문화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동천문화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오래된 전통문화 중의 하나이다.

동천의 사전적 의미는 “1. 산과 내로 둘러싸인,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답고 좋은 곳, 2. 하늘에 이어짐 또는 하늘과 통합, 3. 신선이 사는 세계”이다(다음 국어사전). 사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뜻은 공간에 대한 설명이고, 세 번째 뜻은 그곳에서 사는 존재와 관련된 설명이다. 글자 풀이를 해보면, 동(洞)은 삼수변(?)과 함께 동

*이 연구는 2018년도 경상대학교 연구년제 연구교수 연구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경상국립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eundoh@gnu.ac.kr)

(洞)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로서 물이 함께 모이는 곳을 뜻한다. 동(洞)은 지형적으로 골짜기를 의미하며, 지표의 3차원 공간상에서 분수계를 경계로 한 하천 유역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골짜기의 물길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단위 행정구역을 동(洞)이라 하였다. 동천(洞天)은 골짜기(洞)와 그 상부의 허공(天)을 합친 것이다. 즉, 동천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공간 세계이다. 우리나라에는 산지가 많아 골짜기 곳곳에 동천이 있다. 특히 지리산에는 동천이 자리 잡기에 안성맞춤인 골짜기가 많다. 더욱이, 지리산은 남해에 가까워서 기후가 따뜻하고 온 산이 흙이 덮여 있어 농사짓기에도 알맞다(이민수 역, 2005).

지리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천인 청학동이 있는데, 청학동천은 화개동천 안에 있는 동천 중의 하나이다. 화개동천은 지형적으로 화개천 유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간적 범위에 착안하여 화개동천에 관한 고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였다. 분류를 토대로 화개동천을 크게 화개동천, 쌍계/청학동천, 삼신동천이라는 세 곳의 특징적인 동천으로 구분하였다(국립산림과학원, 2015). 또한 화개동천으로 진입하는 입구의 심진강변 산지에도 덕은동천과 부춘동천이라는 독특한 동천이 있어 연구지역에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동천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는 동천·구곡의 분포와 지형 특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기근도 등, 2007; 기근도, 2008; 기근도, 2012; 서종철·김창환, 2012). 화개동천과 관련된 연구는 최지원 관련 유적 연구(최재영, 2015; 장일규, 2016), 동천의 위치 조사 연구(강기래 등, 2018), 지리산 유람로에 나타난 이상향 경관 특성 연구(소현수·임의제, 2014)가 있다. 그리고 지리산 청학동에 대한 역사지리적 연구(최원석, 2010)가 있다.

이 연구는 화개동천이 독특한 위요 경관(圍繞景觀)을 이루고 있는 점에 초점을 두어 지형 경관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각 동천마다 지닌 장소 이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화개천 유역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고문헌 자료를 토대로 5개의 동천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천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형 조건은 바깥세상과 공간적으로 단절되어야 한다. 또한, 동천 내부에는 농사지이며 살만한 평평하고도 비옥한 땅이 있어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동천의 지형 형상으로서 호리병 모

양의 별천지(壺中別有天)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지형 경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과거 선비들의 눈으로 보았던 지형 경관 묘사에 대한 기록을 수집·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지형도에서 위치를 확인한 후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현장에서는 각자(刻字), 정자 등의 동천 경관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천의 지형 경관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살았던 인물들의 삶과 관련하여 동천의 장소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이상향이자 선경(仙境)인 동천에 대한 막연한 상상 속의 접근을 넘어서, 가시적 경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성 있는 상상력 강화를 위한 작업이다.

II. 화개천 유역의 지형환경

화개천 유역은 북쪽, 동쪽, 서쪽이 분수령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 수구를 통해 심진강으로 열려있다. 북쪽 분수령은 삼도봉(1,500.97m)-토끼봉(1,535.3m)-명선봉(1,583.4m)-삼각고지(1,484m)-형제봉(1,452.8m)-벽소령-덕평봉(1,521m)-칠선봉(1,558.3m)-영신봉(1,651.6m)을 잇는 능선이며, 이는 지리산의 주능선에 해당한다. 동쪽 분수령은 세석-삼신봉(1,290.7m)-형제봉(1,116.2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며, 서쪽 분수령은 황장산(942.9m)-삼도봉(1,500.97m)에 연하는 능선이다(그림 1).

화개천 유역에서는 대체로 북북동-남남서, 북동-남서, 북서-남동, 동-서 방향의 선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선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는데, 이는 쌍계사 입구로부터 화개천 하구를 지나 심진강을 건너 중대리 계곡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선구조는 쌍계사에서 대성 계곡까지 연장된다. 이 구간에서는 아직 뚜렷한 골짜기로 개석이 진전되지 않아서 지도상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둘째, 북동-남서 방향의 선구조는 지리산 서부 지역에서 잘 발달하여 나타나는 3개의 단층선과 방향이 일치한다. 그리고 북동-남서 방향의 단층선을 따라 발달한 골짜기에는 이를 수직으로 자르는 골짜기들이 곳곳에 발달한다. 화개천 유역에서 이와 같은 북서-남동 방향의 골짜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의신 계곡과 연동 계곡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골짜기들은 양안이 가파른 사면을 이루고 폭이 매우 좁은 협곡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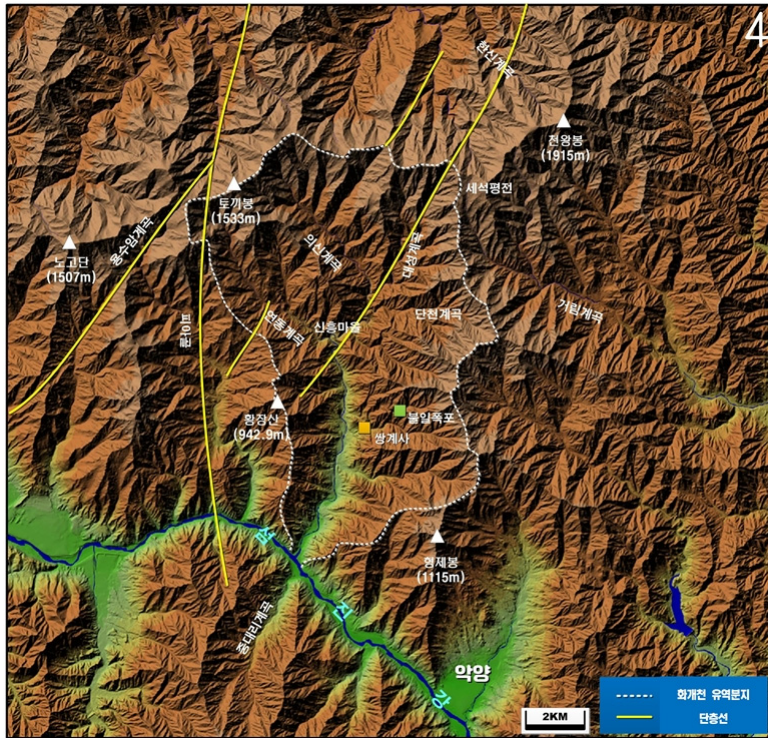


그림 1. 화개천 유역 일대의 지형 환경

자료 : 1:5,000 수치지도를 ArcGIS를 이용하여 DEM 작성(단층선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도).

셋째, 동-서 방향의 골짜기도 화개천 유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쌍계사 계곡과 단천 계곡이 이에 해당한다. 동-서 방향의 골짜기는 길이가 짧고 불연속적으로 발달하며, 골짜기 양사면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골짜기에는 종종 경사 변환점이 나타나며, 곳곳에 폭포가 발달하기도 한다.

화개천 유역 분지의 기반암을 살펴보면, 화개천 하류부는 괴상화강암질 편마암, 중류부 쌍계사 입구까지 구간은 반상변정 편마암, 상류부는 화강암질 편마암, 그리고 최상류부는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이 분포한다(그림 2).

화개천 하류부 화개강터 일대에 분포하는 괴상화강암질 편마암은 변성암 중에서도 화강암화 작용을 받은 정도가 가장 높은 편이어서 외관상으로도 화강암과 유사하다. 그리고 괴상화강암질 편마암은 화강암질 편마암과는 엽상 구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괴상화강암질 편마암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록암 및 화강섬록암이 관입하면서 변성된 암석이다.

화강암질 편마암은 화개천 유역에서 가장 넓은 범위

를 차지하여 분포하며, 화개천 상류부에 주로 분포한다. 화강암질 편마암은 괴상 화강암질 편마암과 유사하나 편리가 잘 발달하여 외관상 화강암과는 차이가 있으며, 반상변정을 갖고 있지 않아 반상변정 편마암과 구별된다. 화강암질 편마암은 괴상화강암질 편마암 및 반상변정 편마암에 비하여 화강암화 작용을 받은 정도가 약하다(손치무 등, 1964).

화개천 유역 분지에서는 대체로 기반암의 종류에 따라 풍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반암의 풍화 양상의 차이는 토양 발달 및 식생 피복, 골짜기의 형상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화개천 유역에서는 하류부에서 상류부로 가면서 하폭이 뚜렷하게 좁아진다. 화개천 하류부는 거의 화강암과 유사한 괴상화강암질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하폭이 약 60~100m에 달한다. 화개천 중류의 반상 변정 편마암 지대를 지나면서 하폭은 약 30~50m 내외로 좁아진다. 화개천 상류부의 화강암질 편마암 지대에서는 약 20~30m 정도의 협곡을 이루며, 특히 범양 계곡에서는 약 10m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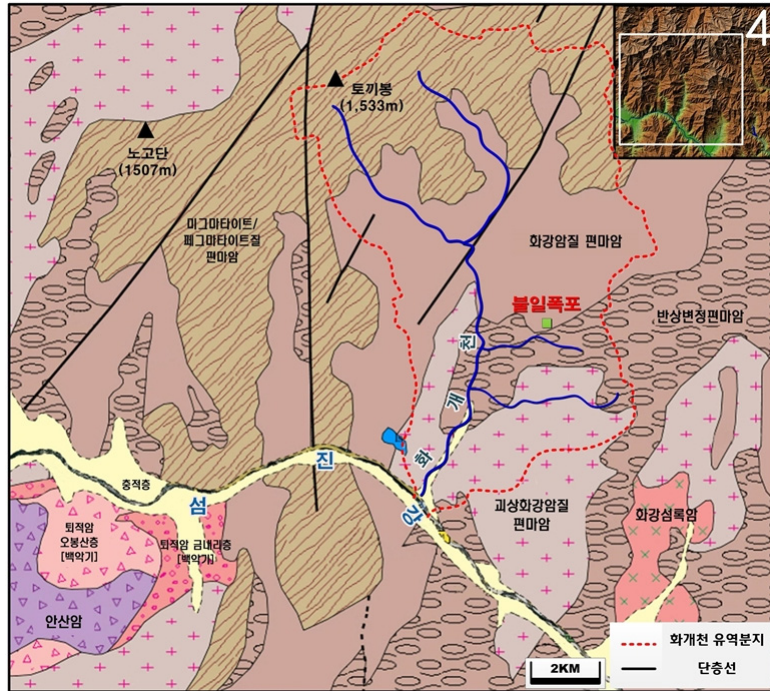


그림 2. 화개천 유역 일대의 암석분포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0,000 지질도를 Adobe Photoshop/Visio를 사용하여 재편집.

외에 달할 정도로 곡곡이 좁아진다.

화개천 상류부의 하상은 대부분 암반 하상을 이루며, 그 위로 다양한 크기의 암설들이 퇴적되어 있고 기반암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력이 산재해 있다. 곡류하는 골짜기에는 여울과 소가 반복되어 나타나지만, 협곡이 거력에 의해 막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화개천 하류 하구의 하상에는 운반된 직경 10cm 내외의 원력들이 약 20~30cm 정도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으나 미립물질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하상 퇴적물을 제거하면 바로 기반암이 나타나며, 하상구배도 있는 편이다. 또한, 섬진강의 지류인 화개천과 섬진강 본류가 합류하는 곳에서는 약 2m 정도의 수위차를 보이면서 합류하고 있으며, 원력 중심의 운반물질들이 경사면을 따라 본류 하상을 매립하는 경향을 보이며 퇴적되어 있다. 이처럼 섬진강 본류와 지류, 지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수위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곡(hanging valley) 형태의 지형 경관이 나타난다(강성열, 1998).

III. 화개천 유역의 주요 동천과 장소 이미지

1. 연구지역의 지역 구분

연구지역은 현재 행정구역 상의 화개면 지역이다. 현재 화개면 지역은 부춘리, 덕은리, 탑리, 삼신리, 정금리, 운수리, 용강리, 범왕리, 대성리 등 9개 리(里)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에서 부춘리와 덕은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행정구역들은 화개천 유역 분지에 해당한다.

연구지역을 고문헌 자료와 주요 동천 경관 요소를 토대로 지형을 중심으로 5개의 동천으로 구분하였다(그림 3). 우선 화개천 유역 분지는 크게 하나의 동천이지만, 그 내부에는 화개천 지류 골짜기마다 특색있는 장소 이미지를 지닌 동천이 존재하는 것이다.

화개천 유역은 크게 화개동천, 쌍계동천/청학동천, 삼신동천으로 구분하였다. 화개동천은 화개천 하구로부터 석문에 이르는 구간의 지역으로서 행정구역 상 탑리, 삼신리, 정금리 일대이다. 쌍계동천/청학동천은 쌍계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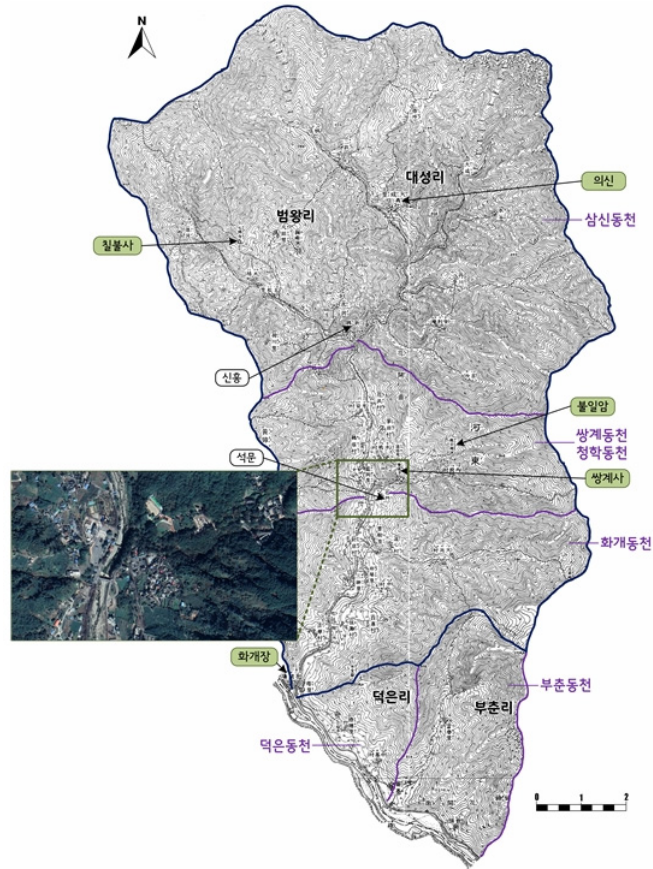


그림 3. 화개동천의 지역구분

자료 : 조선총독부 간행 1:50,000 지형도에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작성.

서 불일암에 이르는 구간의 지역으로서 행정구역 상 운수리, 용강리 일대이다. 삼신동천은 신흥마을 입구로부터 화개천 상류부의 작은 지류 골짜기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행정구역 상으로 범왕리, 대성리 일대이다.

부춘동천과 덕은동천은 지형적으로 화개천 유역과는 분리된 골짜기들이다. 이 두 개의 동천은 화개천 유역의 동천과는 지형적 입지 특성이 다르고, 차별적인 장소 이미지를 지닌 곳이기 때문에 비교 가치가 있다.

2. 화개동천

화개동천은 화개천이 섬진강으로 유입하는 곳으로서 화개천 유역 분지의 하류 구간이다. 화개천이 섬진강으로 유입하는 골짜기 입구는 비교적 좁은 편이며, 여기에

서부터 골짜기 내부로 들어가면서 골짜기 양안이 완경사를 이루고 있어 점차 넓어지는 느낌을 준다.

현재 화개동천 입구에는 화개장터가 있다. 현재에는 화개장터가 영남과 호남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하던 곳이라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조선 시대에는 섬진강을 따라 화개장까지 배가 닿았으며, 육지 산물과 바다 산물을 교역하던 곳이었다. 또한, 내륙에서 화개천 유역으로 접근할 때에 지리산을 넘어 오는 것은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섬진강 수운을 이용하여 하동 포구에서 화개장터로 접근하였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예로써 지리산 유람록의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 함양에 살던 정여창과 김일손은 지리산을 유람하고 화개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하동까지 내려왔다. 또 1558년 조식은 친구들과 함께 사천에서 배

를 타고 하동 포구를 거쳐 화개 포구에서 내려서 육로로 쌍계사와 신흥사 등지를 유람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지리산을 걸어서 넘는 것보다는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화개동 일대를 유람하는 데에 훨씬 수월했다(최석기, 2019).

화개동은 ‘꽃이 피어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현재의 화개동은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화려하게 핀다. 이른 봄 매화를 시작으로 4월이 오면 화개장터에서 쌍계사에 이르는 십 리 벚꽃길이 장관을 이루고, 연이어 배꽃이 만개한다. 5월 초순에는 화개천 변을 따라 철쭉이 활짝 피고, 초겨울에는 주변 산록 야생차밭에 수수한 녹차 꽃이 피어 연중 꽃이 지지 않는다. 과거의 화개동은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겠지만, 화개천을 따라 복사꽃이 떠나려 오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화개동의 이미지는 도화원의 모습과 흡사하다. 자주 인용되는 최치원의 시에 “우리나라 화개동은, 이 세상의 한 별천지(東國花開洞 壺中別有天)”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별유천(別有天)은 ‘별도로 하나의 하늘이 있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의미이다.

조위환은 「유두류산록」에 화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화개동에 들어갔다. 강을 따라 벼랑길이 나 있기도 하고, 돌길이 매우 험하며, 맑은 강에는 백석이 여기저기 있어서 좋아 할 만했다. 산속 외딴 마을은 무릉도원인 듯했으나, 집을 옮겨와 살 수 없으니 한스러웠다.”

섬진강 하류의 지형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의 대하천들과는 달리 바다와 맞닿은 하구까지도 거의 협곡을 이루기 때문에 걸어서 접근하기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그림 4). 또한, 내륙으로부터 화개천 유역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고도



그림 4. 화개동천 입구에서 바라본 섬진강
출처 : 2018년 8월 김종길 작가 촬영.

대의 주능선부를 넘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경로로의 접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화개동천을 유람할 때에는 주로 수운을 이용하였다. 이처럼 화개동천은 지형적으로 외부로부터 접근하기에 어려워서 속세와 동떨어진 상태였으며, 내부의 골짜기 양안에는 숲이 우거지고 봄이면 꽃이 만발하는 별천지였다.

화개동천의 지형적 위치, 형상, 그리고 내부 경관의 모습은 무릉도원을 연상케하는 별천지로서의 장소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또한, 화개동천은 화개천 유역에 있는 또 다른 별천지인 쌍계동천, 청학동천, 삼산동천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서의 장소 이미지도 갖고 있다.

3. 쌍계동천과 청학동천

쌍계동/청학동 골짜기는 화개천 본류로 유입하는 지류이며, 협곡을 이루고 있다(그림 3). 화개천으로부터 쌍계사에 이르는 구간에는 골짜기 양안이 비교적 완만하여 농경지와 거주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쌍계사로부터 불일폭포에 이르는 구간의 골짜기는 양사면이 가파르며 폭이 매우 좁고, 바닥에는 직경 수 m 크기의 암괴가 즐비하고 암설이 그 사이를 메꾸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쌍계사 골짜기를 따라 상류부로 깊숙하게 들어가면 좁지만 평탄한 불일평전이 있고 가까이에 불일폭포가 있다. 이렇게 좁은 골짜기는 병목처럼 좁은 통로이며, 이 좁은 골짜기를 지나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평지인 불일평전이 나타난다(최원석, 2010). 불일평전은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며, 깊은 산속에 이러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그곳 가까운 곳에는 선경(仙境)인 불일폭포가 있다.

불일폭포는 쌍계사에서 북쪽으로 약 3km 지점 해발고도 약 720m에 위치한다. 불일폭포는 청학봉과 백학봉 사이의 협곡을 따라 낙차가 약 60m에 달하는 상하 2단의 수직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직 절벽의 벽면은 편마암의 엽리를 반영하여 상당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폭포수가 비말을 일으킨다(그림 5). 불일평전은 해발고도 약 500m 산지의 정상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이 약 150m에 달하는 평평한 곳이다.

허목이 기록한 「지리산 청학동기」가 불일폭포를 오르는 길에서부터 불일암 앞에서 보는 청학동 골짜기에 대한 전설과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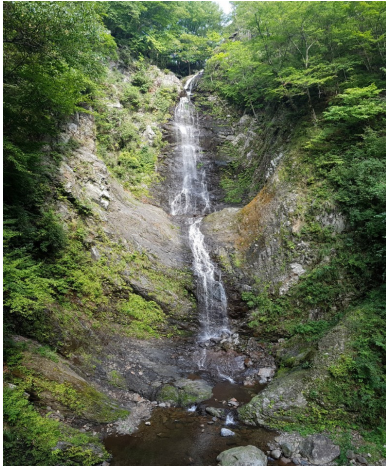


그림 5. 불일폭포

출처 : 2019년 8월 필자 촬영.

“남방의 산중에서 지리산이 가장 깊숙하고 그윽하여 신산(神山)이라 부른다. 그윽한 바위와 뛰어난 경치가 자못 헤아릴 수 없는데 유독 청학동이 기이하다고 일컫는다. 이것은 예로부터 기록된 것이다. 대개 쌍계 석문 위에서 옥소 동쪽 구령을 지나는 사이는 모두 깊은 물과 큰 돌이라 인적이 통하지 못한다. 쌍계 북쪽 언덕을 좇아 산굽이를 따라서 암벽을 부여잡고 올라가 불일암 앞의 높은 석바위에 이르러서 남쪽을 향해 서면 곧 청학동이 굽어 보인다. 돌로 이루어진 골짜기에 가파른 바위요, 암석 위에는 소나무, 대나무, 단풍나무가 많다. 서남쪽의 석봉에는 옛날 학 둥우리가 있었는데, 산중 노인들이 전하기를 학은 검은 날개, 붉은 머리, 자주 빛 다리로 생겼으나 햇빛 아래에서 보면 모두 푸르며 아침에는 빙 날아올라서 하늘 높이 갔다가 저녁에는 둥우리로 돌아오



그림 6. 쌍계석문

출처 : 2006년 5월 필자 촬영.

는데, 지금 오지 않은 자가 거의 백 년이 된다. 남쪽으로 향로봉을 대하고 그 동쪽은 석봉 셋이 벌여 솟았으며, 그 동쪽 골짜기는 모두가 층층 기암인데 어젯 밤의 큰비로 폭포수가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대 위에 돌에는 완폭대라 새겨있고 그 아래는 못이다...”

김일손은 「두류기행록」에 불일평전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쌍계사 동쪽으로 가파른 바위와 위태로운 길을 오르면 꽤 널찍하고 평평하여 농사짓기에 알맞은 곳이 있다. 여기가 세상에서 말하는 청학동이다.”

한편, 쌍계사 골짜기 입구에는 석문이 있다(그림 3, 그림 6). 이 자리는 청학동으로 접근하는 입구이기 때문에 석문이라 이름 짓고 바위에 각자를 새겨 놓은 것이다. 각자는 최치원의 글씨라고 전해오고 있다. 또한, 지형적으로 이 자리는 쌍계사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화개천 본류의 하폭을 좁히는 모습을 보인다.

표 1은 쌍계 석문에 대한 지리지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15).

표 1. 쌍계 석문에 대한 지리지의 기록

지리지	관련 기록
「세종실록지리지」(1454) 경상도 진주목	“쌍계사는 주 서쪽 화개곡에 있다. 전우는 허물어졌고 신라 때에 창건한 조사전만이 있다. 절 앞에 문처럼 생긴 돌이 있는데, 최치원이 그 위에 쓰기를, “쌍계석문”이라고 하였는데, 지금도 어제 쓴 것과 같이 분명하다. 동변의 한 돌에는 ‘쌍계’ 두 자를 새기고, 서변의 한 돌에는 ‘석문’ 두 자를 새겼다.”
「진양지」(1632)	“둥구에서 가기 3리쯤에 두개의 큰 돌이 문과 같이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 최치원이 석면에다 손수 네 글자를 썼다. 즉 왼편은 쌍계라고 하고 오른편은 석문이라 하였으니 글자 획의 크기가 사슴 정강이와 같다.”
「여지도서」(1765) 하동	“골짜기 어귀에 두 개의 바위가 마치 문처럼 마주 보고 우뚝 솟아 있다. 동쪽의 한 바위에는 ‘쌍계’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고, 서쪽의 한 바위에는 ‘석문’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는 최치원의 필체이다.”



그림 7. 환학대 각자

출처 : 2007년 12월 필자 촬영.

‘쌍계(雙溪)’라는 이름은 ‘두 개의 바위가 많은 시내’를 의미한다. 쌍계사는 삼신동으로부터 흘러오는 화개천과 쌍계사 계곡을 흐르는 시내 사이에 위치한다. 두 시내에는 실제로 바위가 많다(최석기, 2019).

쌍계동천과 청학동천에는 최치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쌍계사는 가야산 해인사와 더불어 최치원의 만년 은거지였으며, 쌍계사 경내에는 최치원이 짓고 쓴 비문이 남아 있는 ‘진감선사대공탑비’가 있다. 여러 관련 기록에 따르면, 쌍계사에는 최치원이 머물던 공간인 학사당이라는 독립된 건물이 존재했으며, 그 안에는 최치원의 영정을 모셔 놓아 유람객들에게 좋은 볼거리였다. 또한, 불일폭포로 오르는 길에는 최치원이 학을 불러 타고 갔다는 환학대가 있고, 불일폭포 옆에는 청학봉과 백학봉이 있어 학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그림 7). 청학동은 ‘푸른 학이 사는 골짜기’이며, 학은 신선이 벗하는 동물이다. 쌍계동/청학동은 최치원의 흔적이 가장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과거 유람객들이 방문하고자 선택했던 장소이다.

청학동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최치원의 전설과 함께 신비로운 신선 세계의 이미지를 간직한 채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고자 했던 선행의 장소였다. 이처럼 쌍계동천과 청학동천은 최치원과 신선이 사는 신선 세계로서의 장소 이미지가 간직된 곳이다.

4. 삼신동천

화개동 상류의 범왕천과 화개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그림 8. 삼신동 각자

출처 : 2017년 6월 필자 촬영.

‘삼신동(三神洞)’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는데, 이곳을 기점으로 두 물줄기의 상류를 모두 삼신동이라 한다(그림 8).

1651년 삼신동을 유람한 오두인(1624~1689)은 삼신동의 지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다리 주변 바위에 ‘삼신동(三神洞)’이란 각자가 새겨져 있었다. 신흥사(新興寺) · 의신사(義神寺) · 영신사(靈神寺) 이 세 절이 모두 이 시내의 상류에 있다고 한다. 시내 한줄기는 서쪽 골짜기에서, 다른 한 줄기는 동쪽 골짜기에서 나오니, 서쪽은 칠불암이 있는 골짜기 입구이며, 동쪽은 신흥사가 있는 곳이다.”

삼신동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1611년 이곳을 유람한 유몽인의 유람록에 “동네 이름이 삼신동인데, 이는 이 고을에 영신사(靈神寺) · 의신사(義神寺) · 신흥사(神興寺) 세 사찰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세 사찰의 이름에 모두 ‘신(神)’자가 있어서 삼신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설이 대체로 전하는 설이다.

그런데 1680년 삼신동을 유람한 송광연(宋光淵, 1638~1695)은 유몽인의 설과 달리 “시냇가에 바위 하나가 절벽처럼 서 있는데, 그 바위에 ‘삼신동(三神洞)’이라는 세 글자가 큰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누구의 글씨인지 모르겠다. 승려들은 이것도 최고운의 친필이라고 한다. 이는 필시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삼신산(三神山)의 뜻을 취해 여기에 세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이리라”라고 하여, 삼신동이라는 명칭은 삼신산에서 취한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신흥사를 신흥사(新興寺)라고도 표기하여 ‘신(神)’자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몽인의 설을 취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한 것이다.



그림 9. 홍류교와 능파각 자리로 추정되는 곳
출처 : 2018년 8월 김종길 작가 촬영.

이렇게 보면, 삼신동이라는 명칭은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신(神) 자 들어가는 영신사·의신사·신흥사 세 절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고, 하나는 지리산이 삼신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삼신산의 골짜기라는 뜻이다(최석기, 2019).

삼신동 입구는 신흥동이다. 신흥동의 빼어난 자연경관에 대해 조위환은 「유두류산록」에 다음과 같이 묘사해 놓았다.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무릉교를 건너 신흥동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골짜기가 깊어 별천지 같았으니, 옥빛 땅과 금빛 모래는 걸음걸음 볼 만했고, 옥색 못과 비취빛 물은 곳곳이 명승이었다. 금강산 만폭동과 닮았지만,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은 더 나았다. 날에서 내려 바위에 앉아 마음껏 감상하였다.” 이와 같이 신흥동은 꽃이 천지에 가득하고 향아리 속의 별천지처럼 여겨졌다. 신흥동에는 무릉교가 있는데 이곳이 무릉도원과 닮았다는 것이다.

홍류교는 1561년에 비로소 건축되었다. 그리고 다리 위에 다섯 칸의 누각을 지어 능파각(凌波閣)이라 하였다. 이 다리와 누각은 신흥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서산대사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가정(嘉靖) 신유년(1561) 여름 지리산의 덕사(德士)인 옥륜(玉輪)이 도반 조연(祖演)에게 부탁하여 시냇가



그림 10. 세이암 각자

출처 : 2007년 12월 필자 촬영.

협곡에 누워 있는 소처럼 생긴 바위와 양처럼 생긴 바위를 옮겨 기둥으로 삼아서 한 층의 긴다리를 놓았다. 다리 위에는 다섯 칸의 높은 누각을 짓고 붉은빛으로 채색을 하였다. 그리고서 다리의 이름을 홍류교라 하고, 누각의 이름을 능파각이라 하였다. 그 형상이 밑에는 누른 용이 물속에 누워 있고, 위로는 붉은 봉황이 하늘을 나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홍류교와 능파각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파괴되었다. 조식의 문인 성여신은 1616년 신흥사를 유람하였는데, “옛날 능파각이 있었는데, 임진·계사의 변란 때 왜적들에 의해 소실되어 주춧돌만 남아 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신흥사 입구에는 삼신동이라는 각자가 있고, 홍류교가 범왕천 위로 놓여 있었으며, 그 위에 다섯 칸의 화려한 능파각이 있어서 화개천에 비추는 빼어난 명승이었다. 아마도 지금 범왕천을 가로질러 놓인 다리 조금 상류 쪽에 홍류교가 있고, 홍류교 중간쯤에서 화개천과 합류하는 지점으로 난간을 설치하여 능파각을 세운 듯 하다(그림 9).

신흥사에는 최치원이 지팡이를 꽂은 지팡이에서 짙이 자랐다고 전해지는 범왕리 푸조나무가 있고 최치원이 귀를 씻었다는 세이암이 있으며, 최치원이 썼다는 세이암 각자가 있다(그림 10).

삼신동은 영신봉 밑에 있었던 영신사, 의신마을에 있었던 의신사, 범왕리에 있었던 신흥사 등이 있었던 장소에 연유한 이름이다. 삼신동에는 이 세 사찰 외에도 서산대사가 머물렀던 내은적암, 일곱 사람이 성불했다는 칠불사 등 이름난 사찰이 많았다. 따라서 삼신동은 신선과 승려들이 사는 공간으로서의 장소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삼신동은 화개천 최상류부의 가장 깊숙한 골

짜기에 자리 잡아 수도처로 제격이다. 더욱이 신흥사에는 최치원의 일화와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신선 세계 이 미지를 더욱 풍긴다.

하지만 지금은 신흥사 자리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고, 주변에는 길을 내면서 그 아름답던 모습은 흔적도 없다. 오로지 기록에 의존하여 상상할 수밖에 없다.

5. 부춘동천과 덕은동천

부춘동천과 덕은동천은 화계천 유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섬진강으로 직접 유입하는 각각 독립된 소규모 유역 분지이다.

덕은동은 섬진강 하상보다 수 m 위에 있는 산록의 환경사면에 위치한다. 덕은동은 지형도 상에서는 도로 위나 섬진강변의 모래톱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바라보면 덕은동 내부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그림 11). 이러한 지형적 특색이 옛사람들이 정주하였던 동천으로 선택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악양정은 덕은동이 입지한 환경사면으로부터 하상에 이르는 경사 급변점에 위치하여 섬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춘동은 덕은동과 마찬가지로 섬진강 하상으로부터 수 m 고도 위에 위치하지만, 마을이 입지한 곳의 지형 특색은 크게 다르다. 부춘동은 섬진강으로부터 수 m 높이를 수직으로 올라와서도 마을이 보이지 않는다. 부춘동을 흐르는 신기천은 규모가 작은 2차수 하천에 불과하

지만, 골짜기의 길이는 약 3km가 넘는다. 그리고 골짜기의 형상을 보면,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 골짜기는 길고 좁은 편이며, 마을은 비교적 넓은 환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다. 즉, 부춘동은 섬진강변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며, 길고 좁은 골짜기를 지나 상대적으로 넓은 분지 형상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동천의 모습이다(그림 11).

부춘동은 고려 시대 한유한이 가족을 이끌고 내려와 은거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유한은 최충현이 정권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난리가 곧 닥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그 후 가족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절개를 굳게 지키고 세상 사람들과 교유하지 않았다. 뒤에 최충현이 관직에 제수했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거처를 깊은 산속으로 옮겨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예언대로 거란과 몽고의 난리가 있었다.

부춘동에는 한유한이 살던 자취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누군가가 섬진강변에 있는 바위에 취적대(取適臺)라 새겨 한유한을 기렸다. 취적대(取適臺)는 상단이 평평하여 올라앉아 섬진강을 바라볼 수 있는 바위이며, 바위 전면에 새겨진 각자(刻字)는 거의 풍화되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후자는 ‘한유한이 피리 불던 곳’이라는 의미로 취적대(吹笛臺)라고도 불렀다.

또한 이 바위는 삼 모양을 닮았다 하여 ‘삼암(鍾巖)’이라고 하며, 삼암은 남명 조식의 유람록에 등장한다. 그리고 후대에 누군가가 삼암 한켠에 ‘모한대(慕韓臺)’라고 각자를 새겨 놓았는데, 각자가 또렷하여 새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하다(그림 12). ‘모한대’는 물론 ‘한유한을 사모하는 곳’을 뜻한다(최석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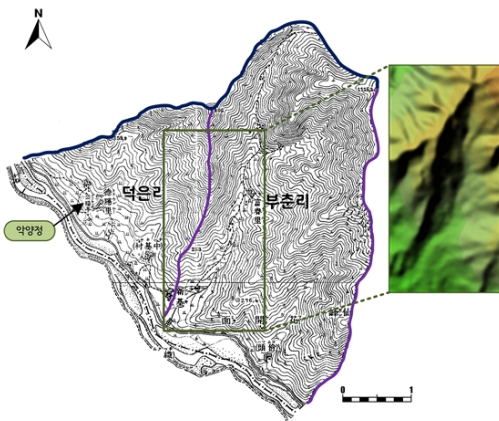


그림 11. 부춘동천과 덕은동천의 지형적 위치



그림 12. 삼암(鍾巖)

출처 : 2018년 8월 김종길 작가 촬영.

덕은리는 ‘도덕군자가 은거한 마을’이라는 뜻을 지니며 섬진강변에 있다. 악양정은 정여창이 독서하던 정사이다. 조식은 「유두류록」에서 섬진강 가 도탄에서 1리쯤 떨어진 곳에 정여창 선생이 살던 옛 집터가 남아 있다고 하였으니, 그곳이 곧 악양정일 것이다. 지금은 도탄이라는 지명이 없는데, 조식은 삽암에서 10리 상류 지점이라고 하였다. ‘탄(灘)’은 여울로 수심이 얇고 자갈이 많아 물결이 일어나는 곳이다(최석기, 2019).

정여창은 23세 때(1471년) 함양 군수로 재직했던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24세 때 화개동 악양정에 우거하면서 독서를 하였으며, 당시 사용하였던 우물이 남아 있다. 1477년 28세 때 한양으로 올라가 김종직과 함께 학업에 정진하였다. 1483년 34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1488년 39세 때 모친상을 마친 뒤 악양정을 짓고 독서하였다. 1489년 40세 때 김일손과 지리산 유람을 하였으며, 이때 ‘악양(岳陽)’ 시를 남겼다. 1494년 45세 때 안음(현재 안의면) 현감을 하였으며, 이때 가까운 합천 야로에 살던 김굉필과 강론하였다.

1498년(연산군 4년)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함경도 종성에 유배되었다. 1504년 55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병으로 죽었다. 그의 시인은 남계서원 뒤 승안산 기슭에 안장되었는데, 그 후 갑자사화로 가장 가까웠던 친구 김굉필이 사사될 때 부관참시 되었다. 1517년(중종 12)에 복권되어 우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함양 남계서원에 배향되었다(위키백과).

조식은 「유두류록」에 한유한·정여창·조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높은 산과 큰 시내를 보고 오면서 터득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유한·정여창·조지서 이 세 군자를 높은 산과 큰 시내에 비교한다면, 이분들은 십 층의 높은 봉우리 끝에 옥을 하나 더 올려놓은 격이고, 천 이랑의 넓은 수면 위에 달이 하나 더 비친 격이다. 나는 3백 리 길의 바다와 산을 유람하였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 이 세 군자의 자취를 다 보았다. 물만 보고 산만 보다가, 그 산수 속에 살던 사람을 보았고, 그들이 살던 세상을 보았다. 그러니 산속에서 10일 동안 느꼈던 좋은 생각이 하루 사이에 인짙은 생각으로 바뀌어 버렸다. 훗날 정권을 잡는 사람이 이 길로 와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다. 또한, 산속을 둘러볼 때 바위에 이름을 새겨 놓은 것이 많았는데, 세 군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반드시 만고

에 전해질 것이니, 어찌 바위에 이름을 새겨 만고에 전하려는 것과 같겠는가?”

부춘동과 덕은동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섬진강에 맞닿아 있는 곳이지만, 강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유한·정여창·조지서 등의 세 군자는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은거하였고 전해오고 있다. 부춘동과 덕은동은 다른 동천들과는 달리, 군자가 은거한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지닌다.

IV. 결론

지리산은 위도상 우리나라의 남쪽에 위치하여 기후적으로는 온화하며, 지형적으로는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를 지닌 산지다. 지리산에 자리 잡은 청학동은 통일신라 말기의 최치원과 고려 시대의 이인로와 관련된 설화들이 전승되어 온 조선 시대 지식인들의 이상향이였다(최원석, 2010). 이에 따라 조선 시대 선비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기록한 유람록에는 당시 그들이 느꼈던 감흥과 현장의 지형 경관에 대한 묘사가 생생하게 남아 있다.

최치원의 시에 “우리나라 화개동은, 이 세상의 한 별천지(東國花開洞 壺中別有天)”라는 구절은 화개천 유역의 지형적 형상을 묘사한 것이다. 지형적으로 호리병의 병목은 좁은 골짜기를 의미하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 평평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 별유천이다.

화개천 입구에서 눈길을 돌려보아도 잘 눈에 띄지 않는 숨은 공간이 있다. 그곳이 바로 덕은동천과 부춘동천이다. 좁은 섬진강변 길에서는 섬진강의 모래톱이 장관이지만, 고개를 돌려 육지쪽을 보아도 산자락 끝부분이 단을 이루어 위쪽은 보이질 않는다. 그 위에 오르면 정여창이 독서했던 악양정이 있고, 한유한이 앉아 있던 삽암이 있다. 좁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나올 것 같은 동천과는 다른 동천 같지 않은 동천이 바로 덕은동천과 부춘동천이다. 덕은동천과 부춘동천은 군자가 은거하여 살았던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화개동천은 또 다른 별천지인 쌍계동, 청학동, 삼신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속세와 동떨어지고 내부에는 숲이 우거지고 봄이면 지천에 흐드러지게 꽃이 피는 별천지이자 무릉도원이라는 이상향의 장소이미지를 지닌다.

쌍계동천과 청학동천은 입구의 별천지인 화개동천을 지나면서 느꼈던 감흥을 간직한 채 석문을 지나서 만나

는 또 다른 별천지이다. 최치원이 머물렀던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 쌍계사를 지난 좁은 골짜기를 오르고 오르며, 갑자기 아담하고 안온한 평지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곳이 불일평전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덕을 좇아 산굽이를 따라서 암벽을 부여잡고 바위에 올라서면 불일폭포가 나타난다. 그야말로 선경(仙境)이다. 쌍계동천과 청학동천은 최치원과 신선이 사는 신선 세계로서의 장소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삼신동은 화개천 하구로부터 깊숙이 들어온 최상류부이다. 삼신동 골짜기는 암반하상에 거력들과 암설이 그 위에 널려있으며, 맑은 시내가 졸졸 흐르고 있다. 이곳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진 신흥사, 영신사, 의신사가 있었으며, 세이암 각자와 푸조나무 등으로 남겨진 최치원의 흔적들도 곳곳에 전해진다. 삼신동은 누구도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첩첩산중에 있어 신선이 살았을 법하고 승려들이 수도하는 모습이 떠올려지는 장소이미지를 지닌 곳이다.

참고문헌

강기래·이해주·배준규·김희채·김동필·김차권 2018, “경상도지역 동천(洞天)의 위치 조사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3), 16-25.

강성열 1998, “지리산의 산지 지형”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근도·김영래·조현 2007, “경상우도 동천구곡의 지형적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4(3), 123-136.

기근도, 2008, “경상좌도 동천구곡의 지형적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5(2), 95-109.

기근도, 2012, “우리나라 동천구곡의 지형경관” 한국지형학회지, 19(3), 123-134.

김일손 「두류기행록(頭流紀行錄)」, 「탁영집(濯纓集)」 권5.

국립산림과학원 2015, 「지리산 권역(화개동)의 산림인문자원 기초 조사」.

서종철·김창환 2012, “화천 곡운구곡(谷雲九曲)의 지형과 가치” 한국지형학회지, 19(4), 1-12.

소현수·임의제 2014,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이상향의 경

관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3), 139-153.

손치무·이상만·원종관·신기홍·김영주 1964, 「한국 지질도 화개도폭 해설서」, 국립지질조사소.

이민수 역, 2005, 「택리지」, 서울: 평화출판사(이중환 1751, 「택리지(擇里志)」).

장일규, 2016, “최치원 관련 유적의 분포와 승모,” 한국사학보, 63, 7-33.

조식, 「유두류록(遊頭流錄)」, 「남명집(南冥集)」 권2.

조위한,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현곡집(玄谷集)」 권2.

최석기, 2019, 「지리산 화개동 : 한국인의 이상향,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최원석, 2010, “장소 정체성의 사회적 재구성: 지리산 청학동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문화역사지리, 22(1), 130-145.

최재영, 2015, “전국의 최치원 관련 유적지 답사를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 경주연구, 24(2), 125-153.

허목, 「지리산청학동기(智異山靑鶴洞記)」, 「미수기언(眉叟記言)」 권28.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454.

「여지도서(輿地圖書)」, 1765.

「진양지(晉陽誌)」, 1632.

다음 국어사전, <https://dic.daum.net>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ttps://mgeo.kigam.re.kr>

교신 : 기근도,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keundoh@gnu.ac.kr)

Correspondence : Keun Doh Kee, 52828, 501 Jinju-dae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keundoh@gnu.ac.kr)

투고접수일: 2021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21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17일